

중세국어 평성, 상성 변동 명사와 관련 제약*

유 필 재
(울산대학교)

Yoo, Pil-Jae. (2014). On the Rising Tone in the Incorporation of Particle and Copula into Nouns in the Middle Korean. *Language Research*, 50.3, 697-713.

The incorporation of the nominative particle *-i* and copula *-i* into a low-pitched syllable of nouns produces a rising tone in the Middle Korean. The volitive *-ó/i-* and adverbative suffix *-i* also cause the same morphophonemic change. The rising tone is the result of contraction of an even tone and a departing tone. There are two conditions for the rising tone by contraction. First, even tone must be linked to syllabic in the contraction. In addition, if the noun had a departing tone within a word, this morphophonemic change would not occur. However, compound is the exception for the second condition. Compound is same with phrase in terms of tonal changes in the Middle Korean. This condition suggest that only first high-pitched syllable is distinctive in Middle Korean.

Keywords: even tone noun, rising tone, contraction, first high-pitched syllable, Middle Korean

1. 서 론

중세국어의 성조 변동은 크게 형태음소론적 교체에 의한 것과 그 결과인 표면성조 형에 가해지는 음성적 제약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金完鎭(1973)에서 ‘律動規則’이라고 부른 음성 규칙에 의한 것이다. 이 변동은 거성이 언달아 나타날 경우 그중 하나를 평성으로 바꾸어 단조로운 거성의 연속을 피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형태음소론적 교체에 의한 변동은 대부분 용언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명사와 관련된 것은 적은 편인데 다음의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음절 명사 중 일부가 처격 조사와 결합하거나 복합명사를 만들 때 평성으로 교체되는 변동이다.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눈 H(目), 누니 HH, 누네 LH, 눈섭 LL¹⁾

‘눈(目)’은 이러한 교체를 보이는 명사의 예이다. (1)에서 보듯이 ‘눈’은 다른 환경에서는 거성으로 나타나지만 처격 조사 ‘-에’ 앞에서 그리고 복합명사 ‘눈섭’에서 평성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섭 L’처럼 후행 요소가 평성일 때 이런 교체가 보인다.²⁾

명사와 관련된 교체의 다른 하나는 평성을 가진 모음 명사들이 조사 ‘-이’나 계사 ‘-이-’와 결합할 때 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 부터 LL, 부터와 LLH, 부테 LR, 부테이다 LRLH

‘부터’의 성조는 평성, 평성인데 단독형이나 다른 조사와의 결합에서는 이 성조가 유지되지만 주격 조사 결합형인 ‘부테’나 계사 ‘-이-’가 결합된 ‘부테이다’에서는 ‘테’가 상성으로 나타난다.

예초에 이 현상은 중세국어의 상성을 평성과 거성으로 재분석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었다. 河野六郎(1951=79: 417-9)에서는 (2)에서 제시한 ‘부터 LL’ 외에 ‘그 L, 그디 LL, 묻져 LL’ 등이 주격 조사 ‘-이 H’, 계사 ‘-이- H’와 결합할 때 ‘그 R, 그디 LR, 묻져 LRH’처럼 상성이 되는 예와 그 밖의 용언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상성의 예로 이러한 상성은 低高의 상승조이며 이는 평성의 低調와 거성의 高調의 축약(contraction)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 현상에 제약 조건이 있음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金完鎭(1973)에 와서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용언 활용에서도 축약에 의한 상성이 나타난다. ‘보고 LH’에서 처럼 평성 異形態를 가지는 동사 ‘보-(見)’가 명사형에서 ‘봄 R’과 같이 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의 평성과 어미 ‘-음’의 거성의 축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런데 평성 어간을 가지는 ‘이시- LL’와 어미 ‘-음 H’의 결합은 항상 ‘이슥 LH’처럼 상성이 아닌 거성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를 통해 金完鎭(1973: 30f)에서는 축약에서 평성, 거성 결합이 상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성을 담당했던 모음이 축약에 의한 음절에서도 主母音으로³⁾ 남아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이시- LL’에서 ‘시’의 평성 부분인 ‘i’가 ‘이슥 /isjum/’의 ‘슥’에서는 主母音이 아닌 ‘j’이기 때문에 상성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약에 의해 단독형 ‘바리 LL(鉢)’⁴⁾ 달리 주격 조사 결합형인 ‘바리 LR’의

1) 설명의 편의상 중세국어의 평성, 거성, 상성은 각각 L, H, R로 표기한다.

2) 이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희재(2008a) 참조.

3) 원문에서는 ‘核母音’으로 표현했다(金完鎭 1973: 31).

4) ‘바리톨 LLH <월인석보 4: 58a>, 바리로 LLH <월인석보 4: 58b>’ 참조. 다만 <訓蒙字會>(叡山本 中: 10a, 東中本 中: 19b)에서만은 ‘바리 LH’로 나타난다.

‘이’는 /ij/로 추정하게 된다(金完鎭 1973: 31). ‘i’는 평성에, ‘j’는 거성에 연결되어 야 상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3) 神通力으로 혼 바리 LR ㄷ외요되 <월인석보 4: 58a>

李基文(1977: 148)에서 제시한 ‘즉자히 HLH, 즉재 HH, HL’의⁵⁾ 예는 이 변동과 관련된 제약을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李基文(1977: 147f)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터 LL, 부테 LR’에서 보이는 성조 변동은 ‘막다히 LLH, 막대 LR’와 같은 현상이다. 평성과 거성의 並置가 상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자히 HLH, 즉재 HH’에서 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에서 명사와 조사, 계사 결합일 경우도 상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이 예측은 맞다.

(4) 그제 HL (痕), 그제로다 HLLH

(4)의 ‘그제로다 HLLH’에서 보듯이 ‘즉자히 HLH’처럼 어두에 거성이 있는 ‘그제 HL’는 계사의 활용형 ‘-이로다’와 결합해도 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재 HH, HL’에서 상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Ramsey (1974: 121)에서는 약센트론의 관점에서 첫 거성 뒤에서의 혼란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자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성, 상성 변동 명사를 다룬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논의의 초점은 상성의 재분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들 명사의 예가 폭넓게 검토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단어 내부에 거성이 있을 때 상성이 나타나지 않는 제약 역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중심을 중세국어에서 평성, 상성 변동을 보이는 명사에 두고 해당 현상을 보이는 여러 명사의 예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 현상은 용언 활용에서도 나타나므로 활용에서의 평성, 상성 변동도 함께 고려한다. 또 이를 통해 명사에서 보이는 평성, 상성 변동과 관련된 중세국어의 언어 사실을 충실히 기술하고, 관련된 제약에 대한 언어학적 해석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5) 李基文(1977: 148)에는 HL만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H도 있다. ‘즉재 HH <능엄경언해 6: 104b>’ 참조. ‘즉재’가 HL로도 나타난 것은 율동규칙인 ‘語末平聲化’ 규칙에 의한 것이다. 金完鎭(1973: 87-91) 참조.

2. 평성, 상성 변동의 개관

중세국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면서 어간 성조가 평성인 명사가 거성인 주격 조사 ‘-이’, 계사 ‘-이-’와 결합하면 축약과 함께 상성이 나타난다.

(5) 바라 LL 발 H 鉢 <훈몽자회 叡山本 中: 8b>
銅鉢은 아래라 LRH <석보상절 13: 53a>

(6) 부터와 LLH 衆生과 이 르스것고 <금강경삼가해 4: 55b>
부테 LR 흔 光明 피사매 <석보상절 13: 25a>
부테사 LRH <석보상절 13: 40b>
부테이다 LRLH <목우자수심결 6a>

(7) 조개 LL 비에 물근 구스리 수머시며 <금강경삼가해 2: 56b>
조개 LR 氣分을 吐하야든 <능엄경언해 8: 55b>
銅螺는 그르세 꾸미는 빛난 조개라 LRH <월인석보 2: 51b>

(8) 다리엿 LLH 고기를 손소 버혀 <월인석보 11: 4b>
股는 다리오 LRH <삼강행실도 충: 17>

(5~8)은 각각 單母音, 상향이중모음, 하향이중모음 그리고 모음 ‘이’로 끝나는 명사가 주격 조사 ‘-이’ 혹은 계사 ‘-이-’와 결합할 때 상성이 되는 예를 보인 것이다. 주격 조사 ‘-이’, 계사 ‘-이-’의 성조는 金完鎭(1973: 39)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두 거성이다.

(9) a. 고지 LH, 짜히 HH, 셔미 RH
b. 고지러니 LHLH, 뜰디시니 HHLH, 일이시나 RHLH

(9)의 예들에서 선행 명사의 성조와 관계 없이 조사 ‘-이’와 계사 ‘-이-’는 모두 거성으로 나타나 이들의 성조가 거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5~8)에서 보이는 상성은 명사의 평성과 조사 ‘-이’, 계사 ‘-이-’의 거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상승조로 해석된다. 즉 (5)의 ‘아래라 LRH’는 ‘바라 LL + -이 H + -다 H’로, (6)의 ‘부테 LR’는 ‘부터 LL + -이 H’로 분석된다.

또 (8)의 ‘다리오 LRH’에서 확인되는 ‘-고’의 이형태 ‘오’에서 분절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계사 ‘-아’가 활용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7)은 (7)의 ‘조개’처럼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므딧 LL(節)’의 예들인데 (7) c)에 나타나는 ‘-거나’의 이형태 ‘어나’ 역시 이 형태에 계사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계사와의 축약 때문에 (7) c)의 ‘므딧’는 평성, 상성으로 나타난다.

- (7) a. 모딘 業 지슬 므딧에 LLH <월인석보 9: 25b>
 b. 罪 니블 므딧며 LRH <석보상절 9: 8b>
 c. 罪 니블 므딧어나 LRLH <월인석보 9: 25a>

그런데 평성과 거성이 결합되어 상성이 되는 현상은 명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金完鎭(1973: 57-6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1음절 모음어간 용언들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평성과 거성으로 교체된다. ‘하-(多)’의 활용형 ‘하거늘 HLH, 하느니 HLH, 하아 HH, 하도다 HLH’에서 보듯이 선어말어미 ‘-거-, -느-, -술-, -다-, -으사’와 모음어미 ‘-아/어’, 그리고 ‘-도다, -다가’같은 극히 일부의 자음어미 앞에서만 거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어미 앞에서는 ‘하고 LH, 하니 LH’처럼 평성으로 교체된다. ‘보-(見)’ 역시 평성, 거성 교체를 보이는 용언이므로 명사형 ‘봄 R’이 상성으로 나타난 현상은 어간 ‘보-’가 ‘나머지 어미’ 중 하나인 ‘-음’ 앞에서 평성으로 나타나고 어미 ‘-음 H’의 거성과 축약된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또 ‘하-(多)’에 ‘-이 H’가 결합된 부사어 ‘해 R’가 상성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명사에서 나타나는 상성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10) 하- L + -이 H → 해 R

‘해 R’는 어간 ‘하-’가 앞에서 언급한 ‘나머지 어미’ 앞에서 평성으로 교체되어 나타나고 ‘-이 H’의 거성과 축약되어 나타난 것으로 ‘바라 LL, 바래라 LRH’와 평행적인 현상이다.

결국 명사에서 보이는 평성, 상성 변동은 명사에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중세국어에서 평성과 거성의 결합이 상성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음운 현상의 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평성, 상성 변동을 보이는 다른 명사들의 예를 검토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우선 이 변동은 명사의 음절 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난다. 앞에서 본 명사들은 모두 2음절 명사의 예였는데 1음절 명사에도 상성 변동은 나타난다. (11, 12)는 각각 1음절 평성 명사 ‘그 L, 차 L’가 조사 ‘-이’나 계사 ‘-아-’와 축약되어 ‘그 R, 채로다 RLH’처럼 상성으로 나타난 예이다.

- (11) 城 안해 바비 업서 조희와 나뭇 겁질조쳐 먹다가 그도 LH 업거늘
 <삼강행실도 충신 14>
 이 므스미 그 R 부테라 <월인석보 8: 21b>
 이 버디 곧 그니 RH <번역노걸대 上: 1b>
 날오되 내 그로이다 RHLH <월인석보 20: 74b>
- (12) 粥 글히며 차 L 달효매 <남명집언해 상: 64b>
 목 므르거든 체로다 RLH 湯郎茶 | 로다 <남명집언해 상: 59a>

3음절 명사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상성이 나타난다.

- (13) 그 씩 惡友 | 손 바래 두드레 LLL 박고 <월인석보 22: 65b>
 棍는 소넷 두드레오 LLRH 械는 바렛 두드레오 LLRH
 <법화경언해 7: 56b>
- (14) 골와랏 LLL 소리 갓뵈 소리 <석보상절 19: 14b>
 貝는 골와래니 LLRH <석보상절 13: 53a>
 螺는 골와래오 LLRH <석보상절 13: 26b>

(13, 14)는 ‘두드레 LLL, 골와라 LLL’가 계사 ‘-이- H’와의 결합에서 ‘두드레오 LLRH, 골와래니 LLRH’처럼 상성으로 나타남을 보여 준다.

또 이 현상은 語種과 관계 없이 나타난다. 상성으로의 변동은 고유어뿐 아니라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도 보인다.

- (15) a. 일로브터 공부를 LLH 흐시니 自這裏做工夫흐니 <번역소학 6: 35b>
 b. 엇디 다른 사람 헤아려 검찰홀 공뷔 LR 이시리오
 豈有工夫 | 點檢他人耶 | 리오 <번역소학 8: 15a>

權仁澗(2009)에 의하면 중세국어 당시 ‘工’의 현실 한자음은 평성인 ‘공’이고 ‘夫’는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평성의 ‘부’이다. (15 a)의 ‘공부를 LLH’이 이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15 b)의 ‘공뷔 LR’는 한자어 명사 ‘工夫 LL’에 주격 조사 ‘-이 H’가 결합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자어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평성, 상성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자어 ‘宗 LL(宗要)’ 역시 주격 조사 결합 시 양성으로의 변동을 보여 준다.

- (16) a. 宗요를 LLH 사물디니 爲切要 | 니 <번역소학 6: 36a>
 b. 자바 두미 宗외 LR 잇느니 操之有要호니 <번역소학 8: 9a>

‘宗’의 현실 한자음은 평성인 ‘宗’이며 ‘要’는 ‘宗요(宗要)’로 쓰일 때는 늘 평성인⁶⁾ ‘요’이므로 (16 b)에서 양성인 ‘외’는 평성인 ‘요’와 거성인 주격 조사 ‘-이’의 축약으로 해석하게 된다.

3. 제약과 변화

이제까지의 검토 결과만으로는 명사에 있어 평성, 양성 변동 현상은 평성 음절과 거성 음절이 축약되어 양성을 형성하는 단순한 음운론적 현상으로 보인다. 음절수나 어종에도 제약받지 않는다.

그러나 평성과 거성의 축약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양성⁷⁾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조건을 만족해도 단어 내부에 거성이 있으면 이러한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 (17) a. 우릐 그제 HL 셋것느니 雜啼痕 <두시언해 25: 46a>
 b. 눈물 그제와 HLH 핏 點을 가스매 드리우노라 淚痕血點垂胸臆 <두시언해 6: 41b>
 c. 벼개에 굿브로니 눈리 두 그제로다 HLLH 伏枕淚雙痕 <두시언해 11: 30a>

- (18) 흐느흔 즈갓 HL 뽏 조츠산 마리니 즈개 HL 證흔산 흔 實들흔 니르 산 전치오... 세흔 즈가와 HLH 늑궂 뽏들 조츠산 마리니 <원각경언해 상 1-1: 26a>

(17 c, 18)에서 ‘그제로다 HLLH, 즈개 HL’는 ‘그제 HL, 즈가 HL’에 각각 계사 ‘-아’,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⁷⁾ ‘그제로다’에 나타난 어미 ‘-도다’의 異形態 ‘로다’가 분절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계사의 존재를 말해 준다. ‘로다’는

6) ‘要(요)’의 성조는 대체로 양성인 것과 평성인 것이 주이고 거성의 예가 드물게 보인다. 權仁漣(2009: 306f) 참조.
 7) ‘즈개도 HLH, 즈갓 HL’에서 보듯이 ‘즈가 HL’의 공존형으로 ‘즈개 HL’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安秉禧(1963=1992) 참조.

계사 ‘-이’ 뒤에 나타나는 ‘-도다’의 이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예들로 평성, 상성 변동은 거성이 단어 내부(정확히는 非末音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약 조건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같은 현상이 형태소 내부에서도 보인다.

- (19) a. 막다히 LLH, 막대 LR
b. 즉자히 HLH, 즉재 HH

(19 a)의 ‘(막)다히’와 (19 b)의 ‘(즉)자히’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평성, 거성의 연결임에도 불구하고 ‘막대’에서는 상성이 나타나고 ‘즉재’에서는 그렇지 않다. 둘 사이의 차이는 ‘즉자히’에는 평성 앞에 거성이 있다는 차이밖에 없다. (19)에서도 평성, 상성 변동에 있어서 ‘거성 제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거성 제약’은 단어 내부에 거성이 있어도 평성, 상성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가 아니면 안된다.

- (20) a. 妃子를 드리샤 보빅로 비스더시니 오누의를 HLLH 나흐시니
<월인석보 4: 39a>
b. 그에 王이 이쇼디 오누의니 HLRH <월인석보 4: 11a>

(20 b) ‘오누의니 HLRH’에서의 상성은 (20 a)의 ‘오누의를 HLLH’을 볼 때 계사 ‘-이’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제 HL’나 ‘즈가 HL’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성이 ‘오누의 HLL’에서는 나타난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오누의 HLL’의 단어 구성이 ‘그제, 즈가’와 다르기 때문이다. <<월인석보>> 권4의 (20 b)에 이어지는 다음의 (21)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누의 HLL’는 ‘오라비 HLH’와 ‘누의 LL’에서 기원한 복합어이다. 성조 역시 일치한다.

- (21) 다 地獄 밍그라 두고 오라비는 HLHH 남지닉 이를 다스리고 누의는 LLH 겨지비 이를 다스릴씩 雙王이라도 흐느니 <월인석보 4: 11ab>

‘오누의 HLL’의 제2구성요소인 ‘누의 LL’는 평성 명사이므로 당연히 조사 ‘-이’나 계사 ‘-이’와의 결합에서 상성으로 나타난다. (22)의 ‘누의라 LRH’가 그 예이다.

- (22) 妹는 누의라 LRH <월인석보 21: 95a>

결국 이상의 예들은 단일어 ‘누의 LL’가 계사 ‘-이- H’와의 결합에서 상성을 보이는 현상이 복합어인 ‘오누의 HLL’에서도 나타남을 보여 주는 것이다.⁸⁾ 중세국어 복합어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정한 ‘거성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대빠개 HLL’를 복합어로 인정한다면 (23)의 예도 이 추정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 ‘대빠개니 HLRH’에서 계사 ‘-이-’와의 결합에 의해 ‘개’가 상성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복합어 어두의 거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3) 簡은 대빠개니 HLRH ··· 제여꿈 달오미 대빠개 HLL 근홀씩
<월인석보 8: 96ab>

평성, 상성 변동에 있어 ‘거성 제약’이 복합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사어 형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하-(多)’에 ‘-이 H’가 결합된 부사어 ‘해’의 성조가 상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다. ‘해 R’은 어간 ‘하 L’의 평성이형태와 ‘-이 H’의 거성이 축약된 결과이다. 명사에 주격 조사, 계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상성과 같은 현상이다. ‘맛나게, 맛있게’ 정도로 해석되는 중세국어 ‘맛내’의 성조는 HR 인데 어간 ‘맛나’의 제2구성요소인 ‘나’ 역시 ‘하’처럼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성조가 거성과 평성으로 교체되는 용언 어간이다. 따라서 (24)에서 ‘내’의 성조가 상성인 것은 ‘해’의 성조가 상성인 것과 똑같이 설명된다.

(24) 맛나 HL + -이 H → 맛내 HR

이때도 어두의 거성은 평성, 상성 변동을 제한하지 못한다.⁹⁾

‘거성 제약’이 복합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중세국어 복합어가 성조의 측면에서 구 구성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성조상으로만 보면 복합어가 구 구성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중세국어 복합어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중세국어 복합어는 구성요소의 성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구 구성과 같다. 복합어를 형성함으로써 원래의 성조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복합 용언에서 구성요소의 성조가 바뀌는 경우는 제2구성요소가 유동적 상성을 가진 어간이거나 ‘녀/니-(行)’인 경우뿐이다(유필재 2005). 복합 명사의 경우는 제 1 구성요소가 처격 조사 앞에서 평성으로 교체되는 1음절 명사인 경우만이 평성

8) ‘누의 LL’가 구성요소로 참여하는 복합어에는 ‘몬누의 LLL, 아스누의 LLLL’도 있는데 ‘몬누의, 아스누의’ 역시 평성, 상성 변동을 보인다.

姉는 몬누의 LLRH 妹는 아스누의 LLLRH <월인석보 21: 162a>

9) 다만 ‘-이’에 의한 부사어 중 단일어이면서 ‘거성 제약’이 적용된 예는 현재까지 문중되지 않는다.

교체를 보일 뿐이고 나머지 경우는 성조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유필재 2008a).

또 복합어의 구성요소는 울동규칙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구 구성과 같다. 金完鎭(1973)에서 ‘律動規則’이라고 부른 음성 규칙 중 하나는 이른바 ‘去聲不連三’으로 불리는 규칙이다. 거성이 연달아 나타날 경우 그중 한 거성을 평성으로 바꾸는 규칙이다. 이 음성 규칙의 적용 단위는 어절이며 어절말로부터 두 번째 음절을 평성으로 교체시킨다.

(25) 歡喜地는 十地엿 처서미니 HHLH <월인석보 8: 54b>

처서물 HLH 根原호야 乃終내 헤여 보면 <월인석보 14: 50a>

‘처서미니 HHLH’에서 보듯이 ‘처섬’의 성조는 HH이다. 여기에 거성인 조사 ‘-을 H’이 결합되어 ‘처섬 HH + -을 H → 처서물 HHH’처럼 한 어절 내에 거성 셋이 이어 나타나게 되면 두 번째 음절인 ‘서’의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어 ‘처서물 HLH’처럼 된다.

(26) 聞業이 사괴면 몹겨를 HHH 보느니 <능엄경언해 6: 26a>

몹겨리 HHH 忉利天에 붓겨늘 <월인석보 11: 30a>

한편 (26)의 ‘몹겨를 HHH, 몹겨리 HHH’에서 보듯이 ‘몹걸 HH’은 이 去聲不連三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몹걸 HH’이 ‘몹 H’과 ‘걸 H’로 이루어진 복합어이기 때문이다. 去聲不連三 규칙과 관련해서 복합어는 구성요소가 독립적인 단위가 되므로 ‘몹겨를 H HH, 몹겨리 H HH’는¹⁰⁾ 거성 셋이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게 된다.

성조 변동 및 울동규칙과 관련된 중세국어 복합어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오누의 HLL, 오누의니 HLRH, 맛나 HL, 맛내 HR’에서 나타나는 상성은 결국 ‘누의, 나’에서 보이는 변동 양상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복합어를 이루는 다른 구성요소와는 독립적으로 성조 변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국어 평성, 상성 변동은 축약에 의해 평성과 거성이 병치되어 상성을 이루는 현상이다. 음절수나 어종과는 관계가 없는 음운론적 현상이다. 다만 이때 평성은 반드시 主母音이어야 한다. 또 거성이 단어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세국어 복합어는 성조와 관련해서는 구 구성과 같은 양상을 보이므로 복합어의 제2구성요소가 이 제약을 따르기만 하면 상성이 나타난다.

10) 울동규칙에 있어 독립된 단위임을 표시하기 위해 어절 경계처럼 띄어쓰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평성, 상성 변동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치려고 한다. 평성, 상성 변동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명사에는 ‘방패 LL(干)’가 있다.

(27) 방패 LL 간 L 干 <훈몽자회 叡山本 中: 13b>

‘방패 LL’는 상성 축약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28)처럼 계사 ‘-아-’와의 결합형 ‘방패라 LRH, 방패니 LRH’에서 상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8) 矛는 槍이오 盾은 방패라 LRH <능엄경언해 1: 22b>

 矛는 槍이오 盾은 방패니 LRH <선종영가집언해 하: 116b>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상성이 나타나지 않는 예도 있다.

(29) 창과 방패니 LLH <소학언해 6: 123b>

(29)의 예는 《小學諺解》(1588) 시기가 되면 평성, 상성 변동 규칙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예는 더 있다.

(30)에서 보듯이 ‘풍류 LL’의 성조는 평성, 평성이다. 한자 ‘風 풍 L’과 ‘流 류 L’에서 기원한 한자어로 생각된다.

(30) 種種 花香과 瓔珞과 幡과 蓋와 풍류로 LLH 供養호고

<월인석보 9: 39b>

이 역시 (31 b) ‘풍류며 LLH’에서 보듯이 《소학언해》에서는 상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1 a)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전 시기에는 상성으로 변동되던 예이다.

(31) a. 풍류며 LRH <월인석보 2: 30b>

 b. 풍류며 LLH <소학언해 6: 121b>

이상의 검토를 통해 《소학언해》가 간행된 16세기말이 되면 명사에서의 평성, 상성 변동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추정된다.¹¹⁾

11) 《小學諺解》에서 평성, 상성 변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에서 ‘빈혀 LL, 종요(宗要) LL’가 ‘빈혀 LR, 종외 LR’로 된 것은 평성, 상성 변동의 예이다.

4. 결 론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현상의 언어학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중세국어에 평성을 가진 모음 명사들이 조사 ‘-이’나 계사 ‘-이’와 결합할 때 상성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평성 어간인 ‘부터 LL’가 ‘부테 LR, 부테이다 LRLH’로 나타나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 평성, 상성 변동은 축약에 의해 평성과 거성이 병치되어 상성을 이루는 음운론적 현상이다. 1음절 용언 모음 어간인 선어말어미 ‘-오/우’, 명사형 어미 ‘-음/움’이나 부사어를 형성하는 ‘-이’와 결합할 때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상성의 형성은 음절수나 어종과는 관계가 없는 점에서도 순수히 음운론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평성은 반드시 主母音이어야 한다. 또 거성이 단어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국어 복합어는 성조와 관련해서는 구 구성과 같은 양상을 보이므로 제2구성요소가 이상의 제약을 따르기만 하면 상성 변동은 나타난다.

현상과 제약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기술에 가까운 것이다. 축약에 의해 평성, 거성의 병치가 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선행 음절에 거성이 있다는 사실이 평성, 거성 병치의 실현에 제약이 된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만약 선행 음절에 거성이 있는 경우를 평성, 상성 변동의 대상 환경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이 현상은 좀 더 간결하게 설명될 수 있다.

‘봄 R’처럼 용언 어간에 명사형 어미 ‘-음/움’이 결합할 때 상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용언 어간은 모두 1음절 모음 어간이어서 복합어가 아닌 경우에는 선행 음절이 있는 경우가 없다. ‘해 R’처럼 ‘-이’에 의한 부사어 형성에서도 선행 음절에 거성이 있는 예는 없다.

남은 것은 명사뿐이다. 대표적으로 2 음절 명사 성조 HL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예들을 평성, 상성 변동의 대상 환경에서 제외시킨다면 이 교체는 主母音이 평성이라는 음운론적 조건만을 가진 자연스러운 규칙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 우선 성조가 HL처럼 보이는 명사 중 많은 예가 실제로는 HH임이 확인된다. ‘서리(間)’같은 예가 대표적이다.

玉까지 흔 빈혀를 LLH 꼭니 괴특고 공교로운 디라 <소학언해 6: 114b>
전외 빈혀 LR 馮外郎 안혜의 머릿단정이 되엇더라 흐니 <소학언해 6: 115b-116a>

切흔 중요를 LLH 삼을디니 <소학언해 5: 33a>
잡음이 중외 LR 인느니 <소학언해 5: 89ab>

그런데 이 예들은 모두 주격 조사가 결합된 것들이다. 본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평성, 상성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예들은 모두 계사가 결합된 것들이다. 예가 적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후행 요소가 계사인 경우부터 평성, 상성 변동 규칙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 (32) 그 습 서리에 HLH MRI 잇느니 <월인석보 1: 24a>
 길흘 林丘人 서리로 HLH 通히 내오 徑路通林丘 <두시언해 9: 16a>

중세국어 한글 문헌 자료에서 ‘서리’는 주로 조사 ‘-에’와 결합된 예가 많고 드물게 조사 ‘-로’가 결합된 예가 있다. ‘서리에, 서리로’는 울동규칙인 去聲不連三 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리에 HLH, 서리로 HLH’만으로는 ‘서리’의 성조가 HL인지 혹은 HH인지 확정할 수 없다.

다행히 ‘서리’의 경우는 (33)의 ‘서리로서 HHLH’처럼 HH로 나타나는 異形態가 문증되기 때문에 계사가 결합된 (34)의 ‘서리라 HLH’에서 상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된다. ‘서리’의 어간 성조는 HH이므로 평성과 거성의 축약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33) 辛苦히 盜賊의 서리로서 HHLH 오라 辛苦賊中來 <두시언해 5: 5b>

- (34) 人間은 사롭 서리라 HLH <월인석보 1: 19b>

그러나 중세국어의 모든 명사의 예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김성규(1998: 30)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는 울동규칙과 관계없이 늘 HL로만 나타나는 명사들이 있다. 앞에서 다룬 ‘그제(痕)’ 역시 이런 예에 속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용례가 모두 《두시언해》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제’는 HH 異形態로 나타나는 예가 없다. 모두 HL로만 나타난다.

결국 평성, 상성 변동 규칙에서 ‘거성 제약’을 없애려면 중세국어에서 거성 뒤에 평성이 다시 나타나는 HL 같은 명사 성조를 부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명사 성조 HH와 HL을 음운론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HH 혹은 HO¹²⁾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단어 내부 각 음절의 성조가 음운론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견해는 이미 鄭然燦(1969), 金星奎(1994)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金星奎(1994)에서는 어절 내부의 첫 거성(상성 포함)만이 음운론적으로 변별적이고 그 뒤의 성조는 울동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평성, 상성 변동에서 거성 제약은 없어도 된다. 어간 성조로 HL 같은 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세국어 명사의 성조 유형에

12) 형태음소론적 규칙이 적용되는 어절 내 첫 번째 거성만 표기하고 그 이하는 공란으로 남겨두는 HO 같은 성조 표기법은 金星奎(1994)에서 제시되었다. 공란 부분은 음성 규칙인 울동규칙의 영역이 된다.

대한 망라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이 설명은 확정이 될 수 있다.

결국 본고에서 다룬 평성, 상성 변동은 중세국어 방점 표기 현상의 유형론에 필요한 논의가 된다. 중세국어의 방점 표기는 단어 내부의 모든 음절에서 동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첫 번째 거성 이후의 변동은 대체로 율동규칙이라는 음성 규칙에 의한 것이다. 이를 단어 내부의 첫 번째 거성만이 음운론적으로 변별적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중세국어의 방점 표기 현상은 音高 악센트(pitch accent)라고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 악센트 관련 논의는 金完鎭(1999: 149)에서 지적된 것처럼 복합어의 성조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복합어의 제2구성 요소에서 평성, 상성 변동이 일어나는 사실은 악센트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복합어의 제1구성요소에 악센트가 있는데도 다시 제2구성요소에 악센트를 부여하는 것은 복합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룬 평성, 상성 변동은 악센트론에게도, 성조론에게도 각자 유리한 논거가 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郭忠求. (1993).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太學社.
- 權仁澣. (2009).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改訂版)』, 제이앤씨.
- 金星奎. (1994). 『中世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성규. (1998). “중세국어 2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 『국어학』 32, 21-47.
- 金完鎭. (1973). 『中世國語 聲調의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 金完鎭. (1999). “나의 책 나의 학문”, 『새국어생활』 9-2, 145-53.
- 安秉禧. (1963). “‘조가’語攷”, 『국어국문학』 26. [安秉禧(1992)에 채수록]
- 安秉禧. (1992). 『國語史研究』, 文學과知性社.
- 유필재. (2005). “후기중세국어 ‘용언어간+용언어간’형 복합용언의 성조와 재구”, 『국어국문학』 140, 223-52.
- 유필재. (2007). “후기중세국어 부사과생접미사 ‘-이’의 형태음운론”, 『國語學』 49, 3-31.
- 유필재. (2008a). “후기중세국어 1음절 명사의 성조 교체 - 비자동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9, 223-57.
- 유필재. (2008b). “後期中世國語 ‘-이’ 副詞語 및 語基 目錄”, 『人文論叢』 27(울

산대), 147-69.

李基文. (1977).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鄭然燾. (1969). “國語 聲調의 機能 負擔量에 대하여”, 『黎堂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鄭然燾(1976)에 재수록]

鄭然燾. (1976).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 一潮閣.

차재은. (1999). 『중세국어 성조론』, 월인.

許 雄. (1955). “傍點研究”, 『東方學誌』 2(연세대). [許 雄(1963)에 재수록]

許 雄. (1963).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福井玲. (1985). “中期朝鮮語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東京大学言語学論集』 '85(東京大), 61-72.

河野六郎. (1951). “朝鮮古文獻の聲点について”, 『朝鮮學報』 1. [河野六郎著作集 1(1979)에 재수록]

河野六郎. (1979). 『河野六郎著作集』 1, 東京: 平凡社.

Lee, Ki-Moon and S. R. Ramsey.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msey, S. R. (1974). “咸鏡・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研究”, 『國語學』 2, 105-32.

Ramsey, S. R.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탑출판사.

Ramsey, S. R. (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edited by Boltz, W.G and M.C. Shapiro,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215-38,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유필재

680-749

울산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전자우편: pjyoo@mail.ulsan.ac.kr

접수일자 : 2014. 10. 31

수정본 접수 : 2014. 12. 11

게재결정 : 2014. 12. 15.

<부록>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세국어 평성, 상성 변동 명사의 예

· 고래 LL

고래와 LLH 거부불 타 가고져 흥논 쓰디 잇노라 <두시언해 8: 58b>

고래 LR 몯겨래 뿌니 <두시언해 25: 53a>

鯨은 고래라 LRL <금강경삼가해 3: 63a>

· 그딤 LL, 그디 LL

對答호딤 그딤는 LLH 아니 듣즈뵈터시닛가 <석보상절 6: 17a>

그딤 LR 엇던 사르민다 <월인석보 10: 29b>

그디는 LLH 두 즈식 잇거니 주근 들 므스기 뉘웃브로

<이륜행실도 玉山書院本 14a>

그디 LR 子息 업더니 므스 罪오 <월인석보 1: 7a>

· ㄹ외 LL

어미 나흔 ㄹ외는 LLH 純호야 셋근 것 업스니 孃生袴子는 純而無雜호니
<금강경삼가해 2: 61a>

어미 나흔 ㄹ외오 LRH 孃生袴子 | 오 <금강경삼가해 2: 61a>

· 녀희 LL

이제 녀희게 LLL 附屬호노니 녀희 LR 一心으로 이 法을 流布호야 녀비 더으게
하라 <월인석보 18: 15b>

· 디새 LL

녀나몬 나모와 디새와 LLH 흥들 호로 호며 <법화경언해 1: 217b>

瓦는 디새라 LRH <월인석보 20: 21a>

· 드리 LL (橋, 階)

시혹 드리를 LLH 밍글며 或作橋梁하며 <능엄경언해 5: 68a>

梁은 드리라 LRH <월인석보 21: 77a>

어는 드리로 LLH 네 方便으로 나를 외오 혀다가 何階予方便謬引
<두시언해 16: 1b>

階는 드리라 LRH <월인석보 21: 201b>

· 몬지 LL

모매 몬지 LL 무티시고 니르샤디 <월인석보 21: 219a>

쫑 몬지 LR 무더 더럽거늘 <월인석보 13: 21b>

· 보리 LL

마름 우횿 마는 보리는 LLH 쏘 마느도다 江上細麥復纖纖 <두시언해 10: 8b>

穰麥은 큰 보리라 LRH <월인석보 25: 22a>

· 비루 LL (皮膚病의 일종)

비뤼 LR 므슴 어려운 고디 이시리오 <번역박통사 상: 63b>

· 저희 LL

저희는 LLH 道德 닷디 아니하야 <월인석보 23: 4a>

저희 LR 날오디 梵天의 이브로서 나라 하고 <월인석보 2: 46a>